



신한생명, 도시 숲 조성 위해 1억 기부

신한생명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시 숲 조성 환경 사업'을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신한생명 임직원 및 설계사의 자발적인 급여 결전으로 모였다. 이번 기부금으로 안양천 내 도시 숲 조성을 위해 나무 701그루를 지원한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생명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재민 구호텐트 지원금 1억 기탁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찾아 신희영 회장에게 이재민 구호텐트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오른쪽)이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재욱 목암연구소장,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이하 목암연구소)는 정재욱 소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정재욱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오른쪽)과 김동식 팀장(왼쪽)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암연구소



지프 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지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제이크 아우만 지프 코리아 사장은 지프 공식 SNS 계정에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강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지프

부음

▲이규철씨 별세, 이은석 건설공제조합 대전지점장 부친상 = 9일, 놀비시민장례원 2층 특1호실, 발인 11일, 041-733-0404
 ▲백순용(전 성균관대 교수)씨 별세, 백승진(의왕예술인협회장)·송철(자영업)씨 부친상, 정기동(대신증권 상무)·정윤철(수원스퀘어 스포츠센터 대표)씨 장인상=8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02-3410-3151
 ▲최정희씨 별세, 문일환(전 경기대 홍보실장)씨 모친상, 김희동씨 시모상, 문창원(GS건설 대리)씨 조모상 = 9일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30분, 031-213-1640

대기업 등용문... 삼성, 청년 SW전문가 4기 배출

청년SW아카데미 4기 수료식 4개 지역 240여명 온라인 참석

삼성전자가 육성한 청년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벌써 4기째 교육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강남 멀티캠퍼스 교육센터에서 '삼성청년SW아카데미' 4기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최윤희 사장을 비롯해 수료생 25명이 참석했다. 전국 4개 지역 수료생 24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는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교육생 선발·교육 운영·취업 지원 등 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교육센터에서 열린 '삼성청년SW아카데미' 4기 수료식에 참석한 수료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최윤희 사장은 "수료생들이 기업에서 실전형 인재로 인정받으며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계에서도 영상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과 신세계 I&C 손정현 대표 등이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는 2018년부터 시작해 4기까지

2087명이 수료했다. 이중 1411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취업률 68%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카카오, LG CNS, SK㈜ C&C, 네이버, 쿠팡, 신세계 I&C,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등 IT·금융권 등 480여개 기업에서 기회를 얻었다. 특히 32%인 455명은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다.

신세계I&C가 매 기수마다 50여명을 꾸준히 채용하는 등 채용 우대 정책도 여럿이다. 수료생들이 역량을 발휘하면서 실전형 인재로 인정하게 됐기 때문. 1기 수료 당시 20여



서울캠퍼스 교육 모습. /삼성전자

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현대오트모터, 농심 ND S, 씨젠, 엔카닷컴 등을 비롯한 80여개 기업에서 ▲서류심사 면제 ▲코딩테스트 면제 ▲'삼성청년SW아카데미' 전용 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 시 교육생들을 우대하고 있다.

현대오트모터에 개발자로 입사한 4기 수료생 이창근 씨는 "소프트웨어를 복수전공 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삼성청년SW아카데미에 입교했다"며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길러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5기 교육생 750여명이 교육 중이고, 7월에 6기 900명이 입교 예정이다. 6기부터는 부울경 캠퍼스도 신설하며, 타지역 확대도 검토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에쓰오일, 14년 째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역할

천연기념물 지킴이 발대식 환경단체에 2.1억 후원금

에쓰오일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본사 대강당에서 '2021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에쓰오일은 9일 이와 관련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두루미보호협회 등 환경 단체에 후원금 2억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8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천연기념물지킴이) 협약을 기업 최초로 체결했다.

에쓰오일의 후원금은 수달·두루미·어름치·장수하늘소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금 및 저소득가정 어린이 교육, 임직원 지킴이 봉사활동 등에 쓰인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9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본사에서 진행된 '2021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캠페인 발대식'에 (왼쪽부터)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 김수호 사무국장,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이완옥 회장,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소 이대암 소장, 에쓰오일 김평길 전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과장, 기아대책 정규상 본부장, 한국수달보호협회 한성용 회장,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철원지회 백종환 지회장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속에서도 생태계 보호 및 연구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생태계 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실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에쓰오일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천연기념물 지킴이 활동은 ▲보호종 전문단체 연구·보호

활동 지원 ▲임직원·고객가족 천연기념물 지킴이 봉사활동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4900여 명의 임직원과 고객 가족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4500명의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이 생태교육 캠프에 참가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애경산업 2080 육군·소방·경찰에 2.1억 상당 구강용품

애경산업의 오럴케어 브랜드 '2080'이(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과 함께 구강보건의 날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소방·경찰을 위한 구강용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8일 용산구에 위치한 육군회관에서 열린 육군 전달식에는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이사, 강인규 육군 인사참모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7일 성동소방서에서 진행된 소방 전달식에는 애경산업의 김남수 상무가 구강용품을 전달했다.

2080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치약, 칫솔, 가글 등을 육군·소방·경찰에 각각 2080박스씩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총 2억1000만원 상당이며, 지원 품목은 GP에서 근무 중인 육군장병 및 코로나19 대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의무경찰, 의용소방대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

KT&G, 상상마당 흥대 음악지원사업 공개 모집

KT&G가 신인·경력 뮤지션과 음악레이블까지 음악계 전반을 아우르는 '2021 KT&G 상상마당 흥대 음악지원사업'에 참여할 뮤지션을 6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는 총 4개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아마추어 뮤지션을 대상으로 하는 '밴드 디스커버리' 부문은 온

라인에서 검색 가능한 자작곡을 3곡 이상 보유한 뮤지션을 대상으로 최종 2팀을 선정한다. 상금 각 200만원·싱글 앨범 제작비·기성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 기회가 제공된다.

기성 뮤지션이 경쟁하는 '상상 펀딩 콘서트' 부문은 미니앨범 1장 이상 및 공연 이력 보유한 뮤지션, 그

리고 자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단독콘서트를 희망하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2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에겐 펀딩 모금액의 100% 추가 지원, KT&G 상상마당 흥대 라이브홀 공연장 무상 이용 기회가 주어진다.

/조효정기자 princess@



지난 8일 용산구에 위치한 육군회관에서 (왼쪽부터)임재영 애경산업 대표이사, 강인규 육군 인사참모부장, 김정만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